

대통령님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근념(勤念)과 진력(盡力)을 다해 주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가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에 대한 엄중한 시정(是正)과 계도(啓導),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민 스스로 창조적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하고, 우리 문화의 수승(殊勝)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경쟁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가는 일은 모두에게 큰 호응(呼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불교계 역시 유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점검하면서 적극 협조하고자 다양한 노력으로 임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2016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통령님께서 특별사면을 진중(珍重)하게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국가의 일에 청원(請願)의 마음을 드리게 되어 송구(悚懼)한 마음도 가득합니다.

단순히 지은 죄를 쉬이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충실(充實)한 참회(懺悔)를 전제로 선처(善處)로 이어지고, 다시금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일념(一念)으로 국민의 삶에 보답할 수 있는 책무를 안겨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는 사회의 통합과 화해,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스스로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자의 다짐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별사면 소식을 접하면서 불교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실천에 동참했던 작은 인연들이 있어 정중하게 마음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로 사회와 국민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주었지만, 불교계가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에 열의(熱意)를

가지고 함께 했던 인사(人士)들이기도 합니다.

황우석 박사는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기인된 것이며 어떤 책임도 달갑게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일관되게 가져왔습니다. 이는 연구의 결실을 통해 인류에게 공헌(貢獻)하고 참회의 마음으로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스스로 알아가는 경책(警策)이기도 합니다.

성기홍 전 체육진흥공단 본부장은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순수한 열정이 실수로 이어진 것에 크게 뉘우치고 겸허한 삶과 최소한의 사회기여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희구 지오영 그룹 회장 또한 순간의 실수를 절실하게 돌아보고 사회발전을 위한 기회를 스스로 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신심(信心) 깊은 불자들로 전국 사찰의 스님들과 많은 신도들이 사면을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깊은 참회를 통해 새로운 정진(精進)의 길을 열어가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면의 혜량(惠諒)을 당사자들이 다시 없는 일대(一大)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삶에서 그간의 과오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도록 제도(濟度)하면서 세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결정으로 이들이 참회의 시간을 잊지 않고 사회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겸허히 걸을 수 있도록 저 역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